

‘디펜딩 챔프’ 호랑이 발톱 이젠 드러내야 한다



앞선 두 경기에서 모두 퀄리티 스타트를 기록했던 KIA 김도현이 8일 롯데전 선발로 나서 팀 연패 끊기에 나선다. (KIA 타이거즈 제공)



타이거즈 전망대

KIA가 사직에서 베팅 끝 승부에 나선다.

시즌 시작과 함께 ‘위기’를 맞은 KIA 타이거즈가 8일부터 사직에서 롯데 자이언츠를 상대로 원정 3연전을 치른다. 11일에는 홈으로 돌아와 SSG 랜더스와의 시즌 첫 대결을 갖는다.

어떻게든 우위를 점해야 하는 절박한 시리즈다.

‘디펜딩 챔피언’으로 기대 속에 출발한 시즌이지만 KIA의 앞선 12경기의 과정·결과 모두 낙제점이다.

지난주 삼성 라이온즈와 LG 트윈스를 상대로 두 경기씩 총 4경기를 치른 KIA의 성적은 1승 3패다.

NC장원파크에서 발생한 관람객 사망 사고로 1일 KBO가 쉬어가면서 삼성과 2·3일 경기가 진행됐고, 주말에는 비가 찾아오면서 잠실에서 LG와 4·6일 두 경기를 소화했다.

KIA는 제인스네일이 선발로 나서 7이닝 무실점의 피칭을 선보인 3일 삼성전에서 유일한 승리를 만들었다.

두 경기에서는 선취점을 가져오고도 승리를 내준 역전패가 남았다. 6일에는 아담 올리가 3실점을 하면서 초반 기싸움에서 밀렸다. 아쉬운 실책도 이어졌다. 2사 만루에서 홍창기의 안타를 처리하던 좌

KIA, 지난주 삼성·LG에 1승3패…부상·실책에 타선 답답

사직 원정 뒤 홈에서 SSG와 맞대결…김도현 롯데전 선발

꼴찌에 반게임차 9위…타선·수비 집중력 키워 반전 이뤄야

익수 이우성이 포구 실책을 기록한 사이 1루수자까지 홈에 들어왔다.

4일에는 중견수 최원준의 실책성 플레이가 나와서 바로 동점을 허용하는 등 KIA는 수비가 흔들리면서 초반 싸움에 제동이 걸렸다.

이어지는 부상도 KIA의 발목을 잡는다.

무릎 부상으로 자리를 비웠던 박찬호가 5일 엔트리에 재등장했지만 종아리 근육 미세 손상을 입은 김선빈이 엔트리에서 말소됐다.

내야에는 부상이, 외야에서는 실책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 답답한 화력도 마찬가지다.

KIA는 지난주 4경기에서 8점을 뽑는 데 그쳤다. 35이닝의 공격에서 점수가 기록된 이닝은 5이닝에 불과했다.

4일 경기에서도 ‘집중력’ 싸움에서 승패가 갈렸다.

KIA와 LG는 이날 나란히 10개의 안타와 5개의 볼넷을 기록했다. 점수는 2-8로 확연히 달랐다. 돌아온 박찬호가 답답한 공격의 활로를 뚫어야

한다. 박찬호는 복귀전 첫 세 타석에서는 침묵했지만 4번째 마지막 타석에서 안타를 기록하면서 2025시즌 재시동을 걸었다.

볼펜 난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마운드에서는 선발진의 이닝이 중요하다.

8일 선발로 나서 새로운 한 주 스타트를 끊는 김도현의 어깨가 무겁다. 김도현은 13일 SSG전까지 두 경기를 소화해야 하는 만큼 공격적인 피칭으로 효율적으로 이닝을 풀어가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외야의 수비 집중력이다. 지난 시즌 KIA는 압도적인 실책 1위였다. 공격력 강화를 위해 외야수 이우성을 1루수로 돌렸고, 서건창도 1루 자원으로 기용하면서 실책이 증가했었다.

올 시즌에는 믿음직한 1루수 위즈덤이 버티고 있는 만큼 수비 불안 요소가 줄었지만, 여전히 수비는 KIA의 약점으로 꼽힌다.

타선과 수비의 ‘집중력’을 키워드로 KIA가 분위기 반전을 이뤄야 한다. /김여울 기자 wool@

“롯데전 부진 끊고 첫 승 챙기겠다”

롯데전 선발 KIA 김도현

2경기 QS에도 패배 아쉽지만

강타선 상대 호투 자신감 얻어

KIA 타이거즈의 김도현이 롯데전 부진 탈출과 팀 승리를 동시에 노린다.

김도현은 8일 사직구장에서 열리는 롯데와의 시즌 1차전 선발로 나선다. 김도현의 목표는 단 하나 ‘승리’다.

김도현은 3월 27일 키움전(6이닝 2실점 비자책점), 4월 3일 삼성전(6이닝 2실점) 선발로 나서 승패를 기록하지 못했다. 두 경기에서 모두 퀄리티 스타트를 기록했지만 승리와는 인연을 맺지 못했다. 무엇보다 이 두 경기에서 팀은 모두 역전패를 당했다.

김도현은 “팀에 도움 되는 선수가 되고 싶었는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서 좋지만 팀이 계속 저서 아쉬움이 많고 미안하기도 하다. 어찌 됐든

이기는 게 최우선인데 이기지 못하고 있다”며 “삼성전에서는 무조건 막아야 했는데 (특정 후) 바로 점수를 주니까 답답했다”고 앞선 두 경기를 평가했다.

팀 승리까지 이끌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은 있지만 두 경기에서 소득은 있었다. 강타자들을 상대하면서 기분 좋은 출발을 했고, 변화구 자신감도 얻었다.

김도현은 “키움도 삼성도 강타선이라 생각했다. 타격감이 좋은 팀이라는 이야기도 들었고, 막상 던지면서 타격감이 좋다고 느꼈다. 최선을 다했고 개인적으로 좋은 성적은 냈지만 팀이 진 게 크다”며 “(삼성전에서) 커브 2개가 기가 막힌 코스로 가줘서 삼진을 잡았다. 나중에 영상을 다시 보니 재미있었다. 그런 게 한 번씩 들어가 주면 자신감도 생기고 힘도 난다”고 설명했다.

김도현의 세 번째 상대는 롯데다.

7위 롯데는 현재 팀타율 0.241(8위)에 머물고 있지만 김도현에게는 어려운 상대다.

지난 시즌 김도현은 롯데전에서 가장 성적이

좋지 못했다. 5경기에 나와 9.1이닝을 소화하는 동안 13실점을 하면서 12.54의 평균자책점을 남겼다. 선발로는 1경기에 출전해 4이닝 6피안타(1피홈런) 2볼넷 2탈삼진 4실점을 기록했다.

지난 시즌 좋지 않은 기억을 가지고 있는 상대인 데다 최근 팀 상황이 좋지 않은 만큼 부담 많은 등판이다. 김도현은 ‘1타자’에 집중하면서 반전을 이루겠다는 각오다.

김도현은 “롯데전에 잘 던지고 싶다. 작년에 좋은 기억이 없었다. 올해만큼은 꼭 롯데를 잡아 보고 싶다. 잘 던지려고 노력하겠다. 1이닝, 1타자씩 하는 것을 목표로 경기를 풀어가겠다”며 “앞선 삼성전에서 밸런스가 너무 안 좋았는데, 이 타자만 막자는 생각으로 한 타자씩 생각하고 던졌다. 이렇게 해야 마음이 편해지는 것 같다. 사사구가 없어야 투수한테 유리한 상황이 만들어지니까, 볼넷을 안 주겠다는 생각으로 승부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최경주 뒷심 부족…PGA 챔피언스투어 준우승

제임스 하디 프로풋볼 홀오브페임 인비테이셔널…상금 2억8천만원



최경주(왼쪽)가 7일 미국 플로리다주 보카라톤의 브로큰 사운드 올드코스에서 열린 제임스 하디 프로풋볼 구 명예의 전당 초청대회 3라운드 9번홀에서 독일의 알렉스 체이카와 걸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최경주가 미국프로골프(PGA) 챔피언스투어 제임스 하디 프로풋볼 홀오브페임 인비테이셔널(총상금 220만달러)에서 준우승했다.

최경주는 7일 미국 플로리다주 보카라톤의 브로큰 사운드 올드코스(파72·7008야드)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3라운드에서 버디 5개와 보기 2개로 3언더파 69타를 쳤다.

최종 합계 9언더파 207타를 기록한 최경주는 11언더파 205타의 앙헬 카브레라(아르헨티나)에 이어 단독 2위로 대회를 마쳤다.

이 대회 우승 상금은 33만달러(약 4억8000만원)다. 단독 2위 최경주는 한국 돈으로 2억8000만원 정도인 19만3600달러를 받았다.

최경주는 16번 홀(파5)까지 10언더파로 카브레라와 공동 선두를 달렸으나 카브레라가 17번 홀(파4) 버디로 1타 차 단독 1위가 됐고, 최경주는 18번 홀(파4)에서 1타를 잃으면서 격차가 벌어졌다.

만 50세 이상이 출전하는 PGA 챔피언스투어에서 최경주는 두 차례 우승했다. 최근 우승은 지난해 7월 시니어오픈 챔피언십이다.

이번 대회에서 우승한 카브레라는 2007년 US오픈, 2009년 마스터스에서 우승했으며 동거녀를 폭행한 혐의로 30개월 옥살이를 하다가 2023년 8월 출소했다. /연합뉴스

광주체중·고, 전국조정선수권 활약

금3·은3·동3개 획득

전국조정선수권대회에서 광주체중·고 선수들이 활약을 보였다.

7일 김해 대동생태체육공원 조정경기장에서 끝난 ‘제67회 전국조정선수권대회’에서 광주체중은 금메달 1개, 은메달 2개, 동메달 3개를, 광주체고는 금메달 2개, 은메달 1개를 목에 걸었다.

여중부 더블스컬(2X)에서는 이수아(3년), 권지영(3년)이 3분 48초 30으로 문산중(3분 51초 79)을 꺾고 1위를 기록했다. 남중부 더블스컬에서는 박예성(2년)과 구시은(2년)이 3분 37초 09로 금메달을 따냈다.

남중부 싱글스컬 김준영(3년)은 3분 57초 60으로 서부건(임궁중·3분 62초 29)에 이어 2위에 올랐다.

여고부 경량급 싱글스컬에서 김지선(3년·사진 왼쪽 두번째)은 8분 11초 40을 기록하며 추중여고 장서연(8분 39초 70)과 호산고 남다인(08분 45초 26)을 따돌리고 1위를 차지했다.



남고부 경량급 싱글스컬 강준우(3년)는 7분 53초 39, 싱글스컬 박준호(2년)는 8분 37초 96로 각각 2위에 올랐다.

남고부 더블스컬에서 호흡을 맞춘 강준우와 박준호는 7분 16초 76을 기록, 경남체고(7분 7초 38)와 부산체고(7분 11초 40)에 이어 3번째로 결승선을 통과했다.

여고부 더블스컬에서 천지민·노효림(이상 1년)은 7분 59초 43으로 3위를 차지했다.

/김다민 기자 kdi@kwangju.co.kr

설영우 뛰는 즈베즈다, 세르비아 축구 우승

한국 국가대표 폴백 설영우가 활약하는 츠르베나 즈베즈다가 올 시즌 세르비아 프로축구 수페르리가를 독주한 끝에 우승을 확정했다.

즈베즈다는 7일 세르비아 베오그라드의 스타다온 라이코 미티치에서 열린 2024-2025 수페르리가 30라운드 홈 경기에서 OFK 베오그라드를 3-1로 제압했다.

개막 30경기 무패 행진(28승 2무)을 달린 즈베즈다는 승점 86을 쌓아 우승을 확정했다. 리그 8연

패를 달성해 통산 11번째 우승 트로피를 들었다.

2위인 파르티잔(승점 63)이 남은 7경기에서 전승하고, 즈베즈다가 전패해도 순위가 바뀌지 않는다.

지난해 6월 K리그1 울산 HD를 떠나 즈베즈다에 입단한 설영우는 리그 24경기에 출전해 6골 3도움을 올리는 등 공격수 못지않은 공격포인트 생산력으로 우승에 일조했다.

/연합뉴스



광주일보 73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